

LG화학, 중국투자 확대 총력전!

EDC-VCM 30만톤 컴플렉스 건설 ... No.2 ABS 30만톤 투자도

LG화학(대표 노기호)이 중국 Tianjin에 세계적 규모의 EDC(Ethylene Dichloride)-VCM(Vinyl Chloride Monomer) 컴플렉스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EDC-VCM 컴플렉스의 EDC 생산능력은 30만톤을 고려하고 있다.

중국 프로젝트가 실행에 옮겨지면 오스트레일리아 Gladstone의 EDC 프로젝트는 완전 철회할 것으로 알려졌다.

LG화학은 2005년 초 중국의 EDC-VCM 컴플렉스 기공식을 가지고 2007년 완공 예정이다. Tianjin에서는 LG화학이 PVC(Polyvinyl Chloride) 34만톤 플랜트를 가동하고 있고 현재 55만톤으로 확장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중국 정부에 EDC-VCM 프로젝트 승인은 신청하지 않은 상태로 늦어질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다.

LG화학은 중국 플랜트가 완공되면 에틸렌(Ethylene)은 한국과 일본에서 공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Sinopec이 Tianjin을 포함 2007년에서 2010년 사이에 에틸렌 100만톤 크래커 컴플렉스를 4기 건설할 계획이나 중국수요를 충족시키기에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LG화학은 중국에서 2008년 완공 예정으로 제2의 PVC 플랜트 건설도 추진하고 있다. 예정부지는 Fujian이지만 최종결정은 에틸렌 조달 여부에 따라 결정할 방침이다.

ExxonMobil, Saudi Aramco, Sinopec은 Fujian에 에틸렌 크래커 컴플렉스를 건설기로 합의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LG화학은 Fujian에서 에틸렌을 조달할 수 없게 되면 PVC 플랜트 건설부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방침인데 Nanjing과 Maoming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G화학은 중국에 No.2 ABS(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 플랜트를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Ningbo에서 ABS 30만톤 플랜트를 가동하고 있어 2008년 경 가동 예정으로 남부지역에 30만톤 정도의 플랜트를 건설할 계획이다. No.2 ABS 플랜트 건설 후보지로는 Guangdong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Huizhou도 후보지로 Huizhou에서는 Shell Chemicals과 중국기업이 Styrene 플랜트를 포함하는 석유화학단지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LG화학은 현대석유화학 분할방식을 놓고 호남석유화학 및 채권은행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난항을 겪고 있다. LG화학은 2003년 호남석유화학에 컨소시엄을 구성해 현대석유화학을 1조7600억원(15억달러)에 인수한 바 있다.

LG와 호남은 현재 50대50으로 분할하는 방안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단지별로 분할하고 분할규모에 따라 지불액이 산정하는 방식을 놓고 절충을 벌이고 있으나 이견이 커 확정치 못하고 있다. 분할시한은 2004년 12월 말이다.

현대석유화학은 에틸렌 45만톤의 제1단지와 에틸렌 55만톤의 제2단지를 가동하고 있으며, LG화학은 제2단지, 호남석유화학은 제2단지를 인수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현대의 Styrene 40만톤 플랜트는 LG화학이, EG(Ethylene Glycol) 55만톤 플랜트는 호남석유화학이 인수기로 확정했다.

LDPE(Low-Density Polyethylene) 27만5000톤, HDPE(High-Density PE) 38만톤, PP(Polypropylene) 50만톤 플랜트는 크래커 분할에 따라 결정된다.

LG화학은 인수하는 크래커의 에틸렌 생산능력을 30% 가량 증설해 Tianjin에 건설할 예정인 EDC-VCM 컴플렉스에 공급할 방침이다.

<화학저널 2004/05/10>